

“ 시내버스 불균형 노선 해소·긴 노선 분리 시급 ”

광주시 노선 전면 개편 연구용역 보고서

노선별 승객 집중심화·정류소 편중 개선 필요

광주시가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나선 가운데 불균형한 노선 해소, 장대(長大)노선 분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노선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은 노선별 승객 집중 현상 심화, 동별 정류소와 노선 편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선배정 불균형 해소가 98건으로 가장 많고 장대노선 분리 57건,

굴곡도 낮춤 47건, 중복노선 우회 31건 등의 순이었다.

정류소가 100곳 이상인 동(洞)은 건국동(131곳), 평동(109곳), 하남동(103곳) 등이며 방림1동과 주월 2동은 각 5곳에 불과했다. 정류소 개수가 최대 20대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시내버스는 전체 98개 노선에 998대가 운행중이며 정류소는 모두 2222개다. 동별로 지나는 노선 수는 충장동이 40개로 가장 많고 중앙동 35개, 서남동 32개, 어룡

동을 30개 노선이 경유하고 본량, 임곡, 양3동, 방림2동을 다니는 노선은 5개도 되지 않았다.

1일 이용객이 1만5000명 이상인 노선은 진월07, 순환01 등 5개 노선, 100명 미만인 곳은 송정93, 임곡91 등 주로 광산구 농촌동 4개 노선으로 조사됐다. 버스 1회 운행당 승객수가 10명 미만인 노선은 송정93, 송정100번으로 분석됐다.

정류소별 승차인원은 광천터미널이 7605명으로 가장 많고 경신여고(5023명), 도로교통공단대신파크(4879명) 순이다.

승객을 가장 많이 태우고 있는 노선과 정류소는 순환01번으로 광천파출소~경신여고 구간으로 시간은 오전 8시 13분

72분에 달했다.

이밖에 시계(市界)의 노선은 화순, 나주, 담양, 장성 등 4개 시군에 모두 18개 노선으로 운행거리가 길고 중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2006년 말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년만이며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 용역 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최종 노선 개편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 가정 3대 정원 만들기’ 신청하세요

전남도 100가구 선정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

자녀, 부모, 조부모 등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위한 정원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조성된다.

전남도는 19일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숲속의 전남이 ‘한 가정 3대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가정 3대 정원 만들기”는 숲을 통해 핵가족화와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지역 내 대가족을 발굴하고, 이들 대가족의 각종 기념일을 위한 오랫동안 남기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30일까지 사단법인 숲속의 전남 누리집(<http://www.jeonnaminforest.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숲속의 전남은 3대가 함께 사는 가구와 신청 사연 등을 고려해 신청 순서에 따라 1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된 가정은 황칠나무, 굴거리, 은목서, 감탕나무, 산딸나무 중 희망하는 나무 3그루와 수목 표찰 등을 지원받아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문화공원 4000㎡ 부지에 나무를 심게 된다.

보통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가족의 의미를 오랫동안 남기는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도민들의 참가를 바란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숲 속의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9년 연속 여가부 수행기관 지정

순천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지난 2007년 개소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 여성가족부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19일 “사회 초년생 청년 여성들의 목표 설정과 경력 개발을 위해 선배 여성이 전문 지식과 직업의식, 마음 자세 등을 전수하고 지도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여성 취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1만5000명의 여성들이 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매년 순천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동산대에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지사 투자유치 방미

이낙연 전남지사가 20일부터 23일까지 투자유치 활동과 우호 교류 강화, 수출협약 체결, LA 한인축제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에 시애틀에서 정현아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소 회장을 비롯한 재미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전남도 관광 및 투자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의 투자 여건을 소개한다.

또한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방문해 첨단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어 전남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오리건주를 방문해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주지사와의 회담을 하고 친환경 농업과 산림산업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위해 리디스커버리 포레스트(Rediscovery Forest)를 방문해 산림생태계 보전, 치유의 숲 힐링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서거차도 어민들 세월호 피해 손실보상 청구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동·서거차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상징물 아이디어 공모

심볼·마스코트 디자인·영문 슬로건 등 3개 분야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사용할 심볼 디자인과 영문 슬로건 등 상징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영문 슬로건 등 3개 부문별로 3위까지 총 9명을 선정한다. 부문별 1위(금상) 입상자에게는 상금 150만원, 2위(은상)에는 상금 100만원, 3위(동상)에는 상금 50만원을 준다. 공모 희망자는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접속

해 출품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waane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1월 4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는 당선작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별도의 용역을 거쳐 대회 엠블럼, 로고 등을 만들 계획이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9일간 207개국 선수단, 국제수영연맹 관계자 등 1만 5천여명이 참여해 경영, 다이빙, 수영 등 6개 종목(7개 세부종목) 경연을 펼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사업’ 전국화 건의

저출산 현장소통 간담회

광주시가 저출산 극복대책의 하나로 ‘손자녀 돌보미 사업’의 전국화를 건의했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 저출산극복 네트워크가 함께 하는 ‘중앙·지방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 정부 인구정책 전달조직 설치 제도 마련, 우수 출산정책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준 완화와 국비지원, 출산정책 알림 앱 구축, 아동양육의 보편적 복지로 확대, 아동 놀이 공간 확충 등이 건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당 양승조 의원은 네트워크 회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마련한 명사 초청 특강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했다.

특강에 앞서 운영한 광주시장은 양 의원에게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손자녀 돌보미 사업에 대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국가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역 저출산극복 네트워크는 지난 5월 25개 회원단체가 참여해 출범했다. 네트워크는 생명존중, 작은 결혼식, 남편 육아 참여,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등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낚시어선 사고 예방 230척 무작위 추출 점검

전남도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낚시어선 775척 가운데 230척을 무작위 추출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낚시어선 인출항이 많은 목포, 여수, 완도 주요 항은 해양경비안전서,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나머지 항은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사·군 점검 내용은 어선위발발장치(V-PASS) 등 통신장비 작동 여부, 승선자 명부 관리, 승선 정원 초과, 출입항 신고, 낚시어선 불법 증축·개축, 안전설비 구비·작동 상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

이다. 운항 중인 낚시어선에 탑승해 구명조끼 착용,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항 여부 등 ‘낚시어선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안전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배택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를 거울삼아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